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unication Satisfaction with Mother Perceived by Adolescents

— Focused on 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李 錦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um, Lee*

순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朴 玉 任

*Dept. of Home Management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Prof.: Ok-Jm, Park*

순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李 曠 珠

*Dept. of Home Management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Kyeong-Ju, Lee*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의사소통 만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은 자녀성별,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나, 의사소통 만족도는 어머니 연령, 가족형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둘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 대처능력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과 관련이 깊은 것을 보여준다.

셋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인 대화로 나타나,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된다.

I. 서 론

의사소통은 가족원들이 가족기능을 수행할 때 가족생활에 형태와 내용을 제공하며, 가족기능은 체계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Cushman and Craig, 1976)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기능과 의사소통 차원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살고있는 현대가족은 가족의 내적, 외적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족의 1차적 기능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필요하며, 이는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도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Galvin과 Brommel(1986)에 의하면, 가족내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원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의사소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에서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청소년기 특히 청소년 초기는 자신의 부모에게 도전적인 시기(Conger, 1977; Herz, 1980)로 보고, 이때 성인기를 위해 청소년기를 재조직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긴장감을 겪게 되고(Blos, 1979),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타자중심적 입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학습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진정한 의미의 공감을 발달시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능력이 개발되기 시작한다(Ritter, 1979; 49)고 하는데, 그러한 능력이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번덕스러움이 가족체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청소년기는 가족체계의 적응력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Ackerman, 1980: 150)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를 가족주기상 가족기능의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로 보고, 이러한 가족기능은 의사소통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의사소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김진희, 1989; 민하영, 1991; 조은경·서병숙, 1994; Galvin & Brommel, 1986). 그

러나 가족내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가족내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입증해 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의 자녀들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을 관심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가족환경 변인을 고찰하여, 이 변인들이 의사소통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질적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 만족을 꾀할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환경 변인(자녀 성별, 자녀 연령, 모의 연령, 학력, 생활수준, 출생순위, 직업, 가족형태)에 따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 의사소통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기 가족의 특성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청소년기 가족은 자녀가 자아정체감 형성이나 심리적 독립의 욕구 증가와 같은 발달 단계상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유안진 1987),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체계내 큰 변화와 갈등을 겪고, 가족 기능상의 장애를 보일수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Olson, Russell과 Sprenkle, 1983). 이를 위해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관한 기초개념과 이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봄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집(cohesion)은 결속(solidarity), 통합(integra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족 응집성 연구는 순환모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순환모델에서 Olson등(1985)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원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정의하면서 가족원들이 가족으로부터 연결 혹은 분리된 정도로 평가하였다. 즉, 낮은 응집성으로부터 높은 응집성 순으로 과잉분리, 분리, 연결, 미분화 또는 매몰로 구분하고 있다. 응집력 수준에는 두 견해가 있는데 첫째, 중간 정도의 응집성 수준이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개인발달에도 적절하다는 것인데, 이는 여러 실증적 연구(Galvin과 Brommel, 1982; Carpenter, 1983; Lavee, 1985; Rodick등, 1986; Minuchin, 1974; Olson, 1988)에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응집력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것인데 Kennedy(1983)는 응집력이 낮을수록 가족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였고, Herzog와 Sudia(1973)의 연구에서도 가족원간 응집성의 결여는 청소년 비행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적응성의 개념은 적응(adaptability, adjust) 또는 변화(change)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에 의하면, 가족 적응성이란, 가족체계가 상황적이고 발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 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가족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순환모델내에서 가족적응성 수준은 경직, 구조화, 융통성, 혼돈으로 분류하여, 경직 수준일수록 변화능력이 낮고, 혼돈 수준일 때 변화능력이 큰 가족이라고 하였다. 적응성 수준도 두 견해가 있다. Olson등(1983)은 적응력이 낮은 가족을 경직된 가족으로서 예측할 수 없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통의 의미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한 반면 적응력이 높은 가족은 혼돈된 가족으로서 변화와 성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적절한 수준의 적응력만이 가족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므로 양극단인 경직, 혼돈된 가족은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Beavers 와 Voeller(1983)는 순환모델과는

달리 적응성을 하나의 능력으로 보고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김진희, 1989 재인용).

청소년 가족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홍성애(1988)는 응집성, 적응성이 높은 청소년 가족이 그렇지 못한 가족보다 자아 정체감이 높았으며, Steinboch(1977)는 가출 청소년 가족의 응집력이 정상 청소년 가족에 비하여 낮고, 의존성 및 부모와의 갈등이 많고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에서 가족원간의 불일치가 심하고 가족내에서의 갈등이 더 많다고 하였다(차은정, 1983재인용).

변인별로 보면, 김순옥(1990)에 의하면, 모자응집성은 형제자매가 있고 출생순위가 첫째일 때 높고, 모녀응집성은 양친부모보다 편친부모이고 모와의 연령차가 적을수록 높다고 하였다. 자녀의 연령, 모의 학력, 형제수에 따라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형제수가 많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으며(김진희, 1989),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가족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은 가족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홍성애, 1988; 한유미, 1990). 그러나 고승자(1985)의 연구를 보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일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상호작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의 모의 취업유무, 가족형태, 종교는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김진희, 1989; 한유미, 1990).

2.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

의사소통은 언어를 포함한 상징을 매개로 해서 사람이 타인과 갖는 상호교섭의 과정(장명옥, 1982; 90~91)을 말하는데, 이는 자기 자신의 표현이나 감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의 기능성 뿐 아니라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등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녀의 자아개념이나 행동발달 등을 촉진할 수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연구(오연옥, 1987; 정혜영, 1986; 이정우, 김규원, 1989)를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형제 자매수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직업이 비취업인 경우, 의사소통 유형이 쌍방 개방형일때,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가정이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3.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의사소통 만족도

Galvin과 Brommel(1986), Anderson(1986)과 민하영(1990)은 가족응집이나 적응수준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수준의 가족에 비해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 의사소통 만족도가 크다고 밝힌 반면에, 김진희(1989)는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에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의사소통 만족도가 증가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광주 직할시에 소재한 6개 중학교의 남학생 300명 여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50명에게 예비조사를 한다음, 1992년 7월 6일부터 20일에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총 650부를 배부하여, 578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가족응집성, 적응성 척도는 Olson, Portner와 Bell(1985)의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FACES III)를 근거로 하였는데, 응집성 척도(점수는 16점~80점)는 정서적 유대, 경계, 연합, 시간, 공간, 친구, 의사결정, 흥미 및 오락등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하여,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2$ 로 높게 나타났다. 적응성 척도(14점~70점)는 가족내의 권력, 협상방식, 역할관계, 관계규칙 등과 관련된 14개로 구성하여,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3$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사

소통 변인 척도는 의사소통에 관한 김순옥(1991) 연구를 근거로 부정적 대화(9문항, 9점~45점), 긍정적 대화(9문항, 9점~45점), 우호적 비언어(7문항, 7점~35점), 적극적 반응(4문항, 4점~20점)으로 구성하여, 신뢰도가 Cronbach's $\alpha=.78, .87, .79, .87$ 로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만족도 척도(5점~15점)는 이결남(1989)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에 대한 느낌, 문제에 대한 상의를 원하는 정도, 편안한 대화를 하는 정도, 견해차이에 대한 대화 정도 및 대화시 듣고 있지 않으면서 듣는 척 하는 정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t-test, F-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s Grouping Test,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54.3%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15세 이상 46.8%, 출생순위는 첫째, 막내가 36.2%, 형제 자매수는 3명이 43.1%, 어머니 연령은 40대가 66.8%,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3.3%, 생활수준은 중상 집단이 30.4%, 어머니 직업이 비취업인 경우 63.1%, 어머니 종교는 무종교, 불교인 경우 각기 30.1%, 자녀 종교는 기독교가 39.3%,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2.5%로 가장 많았다.

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적응성과 의사소통 변인 및 의사소통 만족도 (연구문제 1)

1)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표 1)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은 자녀의 성별($p<.01$, $p<.001$), 자녀의 연령($p<$

표 1.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종속변인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적응성		
독립변인		M	S.D	Duncan	M	S.D	Duncan
자녀성별	여	59.02	11.10		49.13	10.49	
	남	57.82	9.29		48.19	8.63	
		t			1.19***		
자녀연령	13세이하	60.02	9.33	A	50.80	8.14	A
	14세	59.96	10.30	A	49.83	9.67	A
	15세이상	56.78	10.51	B	47.21	9.83	B
			F			7.03***	
어머니 교육수준	국졸이하	54.76	9.76	B	45.23	9.90	C
	중 졸	58.47	9.59	A	48.31	8.64	B
	고 졸	59.52	10.73	A	49.43	10.16	AB
	대졸이상	59.60	10.87	A	52.17	10.01	A
			F			4.16**	
생활수준	상	59.64	10.49	A	50.97	9.62	A
	중·상	60.36	9.45	A	50.06	9.23	A
	중	57.85	10.21	AB	47.72	9.68	AB
	중·하	55.27	10.87	B	45.66	9.49	BC
	하	55.11	10.89	B	44.00	9.71	C
			F			5.10***	
					6.83***		

*연구문제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족환경 변인만을 제시하였음.

*P<.05 **P<.01 ***P<.001

001, $p < .01$), 어머니 교육수준($p < .01$, $p < .001$), 생활수준($p < .001$, $p <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으로 남자는 감정적인 자기노출이 폐쇄되어 있고 여자는 좀더 개방되어 있는 여건으로 보여지며, 이 결과는 김진희(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적을수록 가정의 부로의 관심이나, 자기만의 세계로 몰입되는 경향이 적어 가족적응성, 응집성이 강하다고 사료된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일 경우 가장 높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기능적인 가족에의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수준이 중상층 가정의 청소년이 빈약한 가정의 청소년보다 학교나 사회 생활에서의 성공을 통하여 가족에게 더 밀착되어 있고 가족체제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크다고 한 Douvan과 Adelson(이춘재 외 8인, 1987)의 결과와 일치한다.

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변인(표 2)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연령, 교육수준, 어머니 직업에 따라 의사소통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정적인 대화($p < .05$)에서 남학생이 더 높았는데, 이는 한국가족의 특성중에 남자들은 감정표현을 적게 하도록 사회화 되어진 점을 미루어 볼 때 결국 솔직하고 개방된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우호적인 비언어($p < .05$)에서 막내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우호적인 비언어($p < .001$)와 적극적인 반응($p < .05$)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집단이 가장 낮았다. 긍정적인 대화($p < .05$)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타집단보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더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호적인 비언어($p < .05$)에서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3)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만족도(표 3)

어머니의 연령($p < .05$)과 가족형태($p < .05$)에서

표 2.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정적 대화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		
	구	분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M	S.D	Duncan
자녀성별	여			13.66	2.91		20.36	3.82		19.56	2.82		10.04	2.09	
	남			14.13	3.36		21.06	3.26		19.52	2.64		9.89	2.00	
	t			-1.76*			-2.36			1.31			0.86		
출생순위	첫	째		14.02	3.28	A	20.81	3.68	A	19.39	2.82	AB	10.01	2.05	AB
	중	간		13.78	3.10	A	20.60	3.67	A	19.24	2.52	B	9.66	2.05	B
	막	내		13.79	3.01	A	20.59	3.45	A	19.91	2.85	A	10.15	2.04	A
	F			0.38			0.24			3.14*			2.61		
어머니 연 령	30대 이하			20.38	3.12	A	20.38	3.58	A	19.46	2.64	A	9.96	1.99	A
	40대			20.86	3.14	A	20.86	3.57	A	19.71	2.81	A	10.04	2.06	A
	50대 이상			19.96	3.19	A	19.96	3.93	A	17.62	1.98	B	9.00	2.10	B
	F			0.73			1.58			7.27***			3.18*		
어머니 교육수준	국졸 이하			14.41	3.31	A	20.69	3.21	AB	19.16	2.40	A	9.79	1.88	A
	중졸			13.87	3.12	A	20.21	3.53	B	19.57	2.74	A	9.86	2.11	A
	고졸			13.64	3.01	A	20.96	3.70	AB	19.66	2.83	A	10.09	2.00	A
	대졸 이상			14.57	3.63	A	21.64	3.68	A	19.71	3.05	A	10.14	2.33	A-
F			1.86			2.71*			0.65			0.79			
어머니 직 업	유			13.92	3.26	A	20.35	3.70	A	19.57	2.60	A	10.01	2.07	A
	무			13.86	3.06	A	20.87	3.51	A	19.53	2.85	A	9.95	2.04	A
	t			0.05			2.77			2.32*			1.09		

표 3.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M	S.D	Duncan
어머니 연 령	30대 이하	11.05	2.81	A
	40대	11.27	2.75	A
	50대 이상	9.77	2.90	B
	F	3.66*		
가족형태	확대가족	11.52	2.74	A
	핵가족	11.12	2.78	A
	t	3.17*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여진다. 가족 형태에서는 핵가족보다는 확대가족에서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조부모가 의사소통 중개자 역할을 하여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제한시켜 준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에서 가족문제를 더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3.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과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연구문제 2)

1)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표 4)

의사소통 만족도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p < .$

표 4.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M	S.D	Duncan
가족 응집성	상	12.43	2.30	A
	중	11.24	2.61	B
	하	9.42	3.08	C
	F	32.00***		
가족 적응성	상	12.54	2.40	A
	중	11.23	2.60	B
	하	9.33	2.90	C
	F	37.90***		

*상집단 : $M + SD/2$ 이상,
중집단 : $M + SD/2 - M - SD/2$,
하집단 : $M - SD/2$ 미만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들과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변화 대처능력을 높게 가질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호선(1987), 이정우·김규원(1989)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2)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표 5)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대화가 적을 때, 긍정적인 대화, 우호적인 비언어, 적극적인 반응이 높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긍정적 대화가 많은 집단에서, 비언어 우호

표 5.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M	S.D	Duncan
부정적 대 화	고	10.05	2.89	-8.78***
	저	12.01	2.36	
긍정적 대 화	고	11.78	2.63	6.54***
	저	10.30	2.76	
우호적 비언어	고	12.18	2.42	10.11***
	저	10.01	2.71	
적극적 반 응	고	12.14	2.39	12.59***
	저	9.42	2.57	

*고집단 : 중앙값 이상 저집단 : 중앙값 미만

성이 높은 집단에서, 반응의 적극성이 높은 집단에서 의사소통 개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김순옥(1991)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4.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연구문제 3)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표 6)을 보면, 의사소통 만족도는 여학생, 남학생 모두 유의한($p < .001$, $p < .01$)수준에서 의사소통 변인인 부정적인 대화($\beta = -0.25$)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적극적인 반응($\beta = 0.22$), 우호적인 비언어($\beta = 0.17$), 긍정적인 대화($\beta = 0.09$)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대화($\beta = -0.25$)가 부적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여학생($\beta = -0.18$)보다는 남학생($\beta = -0.34$)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청소년기 자녀와의 부정적인 대화는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남학생에게 더 의사소통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 변인들은 의사소통 만족도를 청소년기 자녀 전체의 40%를, 여학생의 45%를, 남학생의 39%를 설명해준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의사소통 만

표 6. 의사소통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의사소통 만족도					
	전 체		여 학 생		남 학 생	
	B	β	B	β	B	β
가족의 응집성	0.02	0.07	0.05	0.20	-0.03	-0.09
가족의 적응성	0.02	0.08	0.01	0.04	0.03	0.11
부정적 대화	-0.22	-0.25***	-0.17	-0.18***	-0.28	-0.34***
긍정적 대화	0.07	0.09	0.06	0.08	0.07	0.08
우호적 비언어	0.17	0.17***	0.15	0.15*	0.19	0.19**
적극적 반응	0.30	0.22***	0.33	0.24***	0.26	0.19**
자녀의 연령	-0.07	-0.02	-0.21	-0.05	0.12	0.03
어머니교육수준	0.04	0.04	0.11	0.10	-0.02	-0.02
생활 수준	0.05	0.02	0.05	0.02	0.16	0.07
R ²	0.40		0.45		0.39	
F	36.18***		23.11***		15.26***	

족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을 설정하고 이에 관련되는 가족환경 변인을 규명하고 이 변인들이 의사소통 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 의사소통 만족도를 보면, 첫째,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서는 각각 자녀의 성별($p < .01$, $p < .001$), 연령($p < .001$, $p < .01$), 어머니의 교육수준($p < .01$, $p < .001$), 생활수준($p < .001$,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녀 연령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변인은 자녀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에게 부정적인 대화($p < .05$)를, 막내인 경우 우호적 비언어($p < .05$)를 더 많이 하며,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집단이 우호적인 비언어($p < .001$)와 적극적인 반응($p < .05$)을 적게 사용하였다.

가족환경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는 어머니의 연령($p < .05$)과 가족형태($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은 집단, 핵가족인 경우 의사소통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만족도를 보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p < .0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 변인에 따라 의사소통 만족도($p < .001$)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대화가 적을수록, 긍정적인 대화가 많을 때, 우호적인 비언어를 많이 사용할 때, 의사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높을 때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의사소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은 부정적인 대화($\beta = -0.25$)가 가장 크고, 적극적인 반응($\beta = 0.22$), 우호적인 비언어($\beta = 0.17$), 긍정적인 대화($\beta = 0.09$)순으로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설명력은 40%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만족도는 가족환경 변인보다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사소통 만족도에 부정적인 대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의사소통이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유지, 변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는데 이 연구를 통하여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입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을 해보면, 외국에서 개발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검사도구를 한국가족에 적용하였으므로 계속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척도의 개발로 한국가족의 가족기능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사소통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통로 모색을 위하여 가족환경변인, 가족기능변인, 의사소통변인 외에도 사회심리적요인, 상호작용요인 등을 포함시킨 다각적인 접근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고승자(1985).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과 청소년의 성격차원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김순옥(1990). 고등학생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 및 이에 대한 가족구조변인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43-155.
- 3) 김순옥(1991). 10대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진화(1989). 부모-청소년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6) 오연옥(1987). 사춘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중 3 학생을 중심으로 -.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7) 유안진(1987). 인간발달산강, 서울 : 문음사
- 8) 이결남(1989).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및 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9) 이정우·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3), 147-159.
- 10) 이춘재외 8인(1987).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11) 장명옥(1982). *가정관리학*, 교문사.
- 12)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연구(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정혜영(1986). 십대자녀와 부모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조은경·서병숙(1994).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대인거리,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04-116.
- 15) 차은정(1993). 청소년 스트레스와 가족체계 및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 울산사 중학생을 중심으로 -. 울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한유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17) 홍성애(1988). 가정환경과 가족체계 상호작용 유형이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18) Ackerman, N.J.(1980). The Family with Adolescents, *The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E. Carter and M. McGoldrick, eds. N.Y : Gardner Press, Inc., 147-170.
- 19) Anderson, S.A.(1986).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 A test of an Olson Circumplex model hypothesis. *Family Relation* 35, 289-294.
- 20)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Y.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21) Carpenter, P.J.(1983). Family cohesion, adaptability and offspring adjustment the discriminative power of th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Ph.D. Dissertation Univ. of Southern Mississippi, 1982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1), 296-A
- 22) Conger, J.J.(1977). *Adolescence and Youth*(2nd ed.,) N.Y. : Harper and Row
- 23) Cushman, D.P.& Craig, R.T.(1976). Communication systems, Interpersonal Implications, Exploration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G.R. Miller, ed.,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24) Galvin K.M. & Brommel B.J.(1986). Family communication :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tt, Foreman and Co.
- 25) Herzog, E & Sudia, C.E.(1973). Children in Fatherless Families In Cadwell, B.M. & Ricciuti, H.N, eds.,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6) Herz, F.(1980). The impact of Death and Serious Illness on the Family Life Cycle. *The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Elizabeth Carter and Monica McGoldrick, eds., N.Y. : Gardner Press. 223-40.
- 27) Kennedy, G.E.(1983).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 Cohesion, adaptability and stress in blended, single-parent and intact families. Ph.D. Dissertation The Florida State Univ., 1983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9), 2899-A.
- 28) Lavee, Y.(1985). Family type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 Integ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29)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 30) Olson, D.H.(1988). Family types, family stress, and family satisfaction : A family development perspective, In David M. Klein & Joan Aldous (1988), *Social Stress and Family Development* N.Y. : London, The Guilford Press.
- 31) Olson, D.H., Russell, C.S. & Sprenkle, D.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32) Olson, D.H., Portner, J.& Lavee, Y.(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 In D.H. Olson, H.I. McCubbin, H.Barnes, A.Larson, M.Muzen, & M.Wilson, *Family Inventories*, Minneapolis : Univ. of Minnesota Press.

33) Ritter, E.(1979). Social Perspective-Taking Ability, Cognitive Complexity and Listener-Adopted Communication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46, 42-50.

34) Rodick, J.D. Henggler, S.W. & Hanson, C.L.(1986). An evaluation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and the Circumplex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77-87.